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대축일

기도서 P. 496

제1독서(역대하 24, 18-22)
제2독서(로 마 5, 1-5)
복 음(마 태 10, 17-2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수선(首先) 탁덕 김대전(안드레아)

오 련 택 신부



오늘은 복자 김대전신부님 대축일입니다.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순조 21년) 충청도 내포
솔피(現 忠南 江津郡 中江面 新宗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부님은 당시(1836년) 중국인 라모방신부님의 추천
에 의하여 최초의 유학생이며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신
학생으로써 중국 마카오에서 수학했으며 1845년 8월
17일에 고 주교님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고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셨습니다.

신부님은 서품후 즉시 귀국하여 1년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배교자 김여삼의 밀고로 연평도 근해 순위도에서
잡혀 사학을 배우고 섬기며 선전 한다는 죄목으로
1846년 9월 16일에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참수처명 하
셨습니다.

김대전신부님은 교황 비오 11세에 의하여 1925년 7월
5일 79위 복자위에 오르셨고 비오 12세 교황에 의하여
1949년 11월 25일에 오늘 교회축일포에 기재된대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대전신부님의 유언을 소개하면 "여러분! 죽는 순간
에 다다른 나의 말을 귀 담아 들으시오. 내가 외국인과
상통한 것은 내가 믿는 종교때문입니다. 내가 위하는 천주
때문인 즉 내가 지금 죽는것도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며
지금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요. 여러분! 사(死)
후에 복자가 되고싶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천주 당신
을 섬기지 않는자는 영벌에 처하기 때문이오."

이상 간단히 신부님의 약력을 소개했습니다만 김대전
신부님은 25세의 짧은 생애를 살으시면서도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물론,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써 이땅에 새
로운 지식을 가져다주는 근대화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신
부님의 홀리신 거룩한 피는 한국 교회 신앙의 씨가 되고
밀거름이 되어 교회는 숭한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더욱더
육성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복음선포 200주년을 앞두고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는 이때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
시한번 점검하고 교회 발전과 복음선포를 위해 평신도
사도직을 철저히 이행하며 사제에 대한 존경심과 절대적
인 순명 그리고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다시한번 결심합니다.

<김제 천주교회 주임신부>



무언가 잘못된 믿음

이란에서는 호미(호메이니)로 사다리(사드르)를 넘어
뜨리다가 그 사다리에 깔려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전통이나 종교적 배
경에서 빚어진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
득이 가지 않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종교가 정치에 지나
치게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었는가
를,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

서울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또 서로 동조(?)해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여 세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매스컴의 바람을 요란하게 타고 있다.
(그 저간의 사유를 알겠더라고는, 공정한 보도를 자부하
는 매스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도의 내용으로 보
아서는 그들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는 틀
림없으나,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그들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하느님 보
다는 성모 마리아를 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다. 또, 소위 믿는자들인 우리편으로 보아서는, 그들
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너무
나 무관심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고 알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무지를 나무라기
에 앞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반성해 볼 필요가 분명하
있다. 신앙의 대상과 공경의 대상을 착각하는 신앙생활
이, 그들의 눈에 잘못 비치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안에서만 형제애와 사랑을 말하지나 않았
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
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먹여라」고 말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야고보 2, 14-26 참조)

숲 정 이 산책



당신의
순교는
잊되지
않아...



聖地순례는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의 성지 : 이 민족에는 인간적으로는 참혹하지 만 정신사와 신앙사에는 영광스러운 무수한 성지가 있다. 성지는 이 민족 신앙사의 현장이다. 그 종교의 위대 함은 어지럽도록 어렵고 차원높은 철학적 교리를 소유하고 있으나에 있지 않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그 민족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느냐에 있다.

성지순례의 목적 : 인생은 나그네 길, 모든 인간의 본 직지는 이 지상이 아니다. 믿는 이의 모임인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정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천상 고향을 향한 순례의 길에 발을 짓고 있다. 순례의 목적은 천상 고향을 향해서 살던 이 민족의 신앙현장을 만나는 체험과 그 체험을 오늘의 우리 것으로 옮기려는 데 있다. 그러기에 흥청거리는 관광식의 순례는 순교신앙에 개통을 갖기는 썩다. 순교신앙의 일부를 진지하게 체험해 보려는 안간힘이 없다면 시체 감상이 된다. 순교자는 이 지상에 마지막 가치를 두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계속 순례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신앙사는 죽음의 순례였다.

도보순례 : 인생은 걷는 것, 고단하다고 주저 앉으면 죽는다. 기왕이면 힘있게 걸어야 한다. 발이 부러져도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도보 순례는 인간조건을 초극하던 순교길을 제발로, 자유로, 걸으며 맞본다. 나도 예수님과 치명자의 짙 길을 참여한다. 순교자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만이 순교력의 밑바탕이었다. 자기 증거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은 미남 예수를 감상하는게 아니면 시체 예찬론이다. 부활은 죽음이 씨앗이다. 도보 순례는 죽음의 행렬이다. 안일에서 죽는다. 헛개비 감상을 포기한다. 십자가의 무드잡는 신앙 분위기를 개량하게 한다. 감정은 단물이 빠지면 내뿜는 껌과 같은 것, 순교 신앙은 오직 살고자 하는 열병, 진하고 매섭고 뚝 부러지게 살려는 작심뿐이다. 순교의 길은 하느님과 깊은 정에 느러지고 잠입하는 길이다. 잠입의 분위기는 침묵이다. 성지순례는 죽음의 행렬이기에 침묵이 흐른다. 죽음처럼 어둡고 깊고 조용한 침묵이 있을가. 도보순례에는 오직 기도와 주님의 육성, 주님의 눈빛, 하느님과 깊은 정에 빠지는 일 뿐이다.

걸고 땀흘리고 배고프고 지치는 길이다. 잠자리가 거칠스럽고 시달리는 밤을 보내는 순례의 길이다. 그제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생의 구석에서나마 인간의 조건을 초극할 가능성을 맞보고 인간이 자기 본능을 초월할 때 자유로워짐을 체험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생연합회 제공)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르듯, 우리도 수효가 많지만 그리스도안에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합니다. (로마 12 : 4~5)

웬일인지 요즘 사람들은 모임을 잘 만듭니다. 뜻을 같이 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애있게 살아 가자는데 그런 모임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의의 모임이나 조직을 자기 한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명예를 이룩하기 위해서 조직한다면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우기 안된 것은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거기에서 빠지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실망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모임의 인원 중에서 좀 고분고분하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교묘하게 소외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는 길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임을 가지고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모임에 가담되어 있으며 그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속에 맺어져 있으며 행여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 성제 감복 후

「천주 찬미」

천주는 찬미를 받으소서. 천주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참 천주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를 받으소서.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시는 찬미를 받으소서. 위로자이신 파라골리또 성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천주의 높으신 어머니,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는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화로운 승천은 찬미를 받으소서. 성모의 원죄 없으신 거룩한 잉태는 찬미를 받으소서. 동정이시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배필이신 성 요셉은 찬미를 받으소서. 천주는 천사와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종 싱크 크
백 곰표 씽크 주방
(東南綜合 싱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 (비오)

신부화장·파마·교우분들
특별우대

데레사 미용실

경기전 앞 ⑥ 1 7 0 3
범 데레사(순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남

숨겨진 상태로의 울림과는 달리, 종이 표출된 종이가 인상적인 노송동 성당(주임신부 김정원)에서는 매 주간마다 「베소라」(기쁜 소식) 성서 강의를 -월요일 오후 2시에 수녀들을 위하여, -화요일 오후 8시에 평신도들을 위하여 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 80년 11월 18일에 개강된 성서 공부는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들어간다. 타 본당 교우들도 눈에 띄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노송 성령 봉사자들은 본당신부의 지도 아래 「제19차 성령세미나」를 7월 13~18일까지 개최하는데 성령 체험, 신앙 체험을 원하는 이들의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한편 성령세미나를 받은 이들을 위하여 성령 기도회를 매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30분에 하고 있으며 「은혜의 밤」은 그달 마지막 금요일 밤에 갖는다고 한다.

말씀에 주린 이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이 모임들에 성황을 이루길 기대하면서 자세한 문의는 전화 ② 7032로 연락 바란다.

『국제 성체대회』 참석자, 9일 여정에...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불란서 루르드에서 제42회 국제 성체대회가 열린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교구 대표로 7명이(김치덕·박노안·육춘자·하상열·김선원·최순덕·박매리수) 9일 출국, 20여일의 여정에 오른다. 긴장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시어 성체 신심에 활력소가 되길 빈다.

농민회관 건립 모금운동에 동참을...

인간의 생명을 이어주는 식량 생산자로서 사회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면서도 정당한 댓가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이 하느님 안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활동을 해온 가톨릭 농민회 회관 건축공사가 상당식을 가졌읍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깊은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농촌 사회의 복음화를 염원하는 뜻있는 분들과 어려운 경제상태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합쳐진 힘으로 건축중인 회관이 자금난으로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복음화를 염원하는 분들의 성원에 맞추어 농민회는 농촌현장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 모금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한국 가톨릭 농민회 회장 최 병 옥 지도신부 이 종 창 드림

사제양성 후원기금 교구 집계 현황

사순절을 기해 모금한 「사제양성 후원성금」을 마지막 집계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당초 계획이 1천5백만원이었는데 아래의 같이 정성을 쏟아 주셨다.

본 당	81년도	본 당	81년도	본 당	81년도	본 당	81년도
교 장	95,000	김 계	226,065	부 안	85,050	수 류	102,500
신태인	138,210	원 평	149,500	정 음	314,470	대 야	375,000
둔율동	581,430	오룡동	550,000	월명동	736,370	팔 마	450,730
금 마	24,120	오 산	355,000	삼 베	344,935	주현동	130,807
창인동	1,550,000	중 양	629,246	노송동	288,754	덕 진	187,605
복 자	396,641	서학동	300,357	술정이	210,000	진 동	563,000
파티마	222,852	남 원	249,707	상 관	209,000	순 창	50,000
입 실	215,000	무 주	195,724	장 계	165,000	장 수	120,000
진 안	160,310	한 들	160,725	여 산	275,950	용 안	165,100
합 열	204,000	화 산	301,950	황 등	244,730	기 타	6,170

80년도까지의 누락분 1,241,967원 81년도 11,731,008원 총계 12,972,975원

요심이 (413)

장군이었던 최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아부 발언



그전에도 최장군, 장장군이 북한에 가서...



안되겠다



나리들 반공교육을 철저히시키시요!



직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일반직 남자 ○명
 - 응시자격: 가. 만 25세~35세 병역필 및 면제자 나. 고졸이상 주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졸업 증명서 다. 병적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자격증사본 각 1통
 - 접수기간: 7. 1~10 17:00
 - 접수처: 당 조합 서무계 (② 4559)
 - 전형방법: 일반상식, 주산,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81. 7. 11 17:00 당 조합 사무실
 - 합격통지: 개별통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않음
- 전주 파티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 성

보신·보양·고단위 영양식품
토통탕을 권합니다.

土 龍 의 집

전주시 경원동 1가 78-3
(민중서관 옆 송월타운 2층)
전화 ② 8269
정 형 석(시메온)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미도(덕배)·이 마리아

훈수자재장·티크장·차단스·장식
장·책장·테이블·응집셋트·문갑
·단스·가구 일체 취급

대 륙 가 구 점

배 양 길(마리노)
전주시 전동 1가 216
(동양당약방과 남문 중간사이)
전화 ② 0950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성직, 수도자 사회 사목 세미나 : 7월 6~7일, 공문 81-27로 참조
2. 전주교구 도보 묵상 순례 : 일시-7월 22일~25일, 장소-진산→고산→전주, 주최-전주교구대학생연합회 대상-대학생 및 청년, 접수-7월 11일까지 (3,000원), 접수처-전북대 앞 가톨릭 학생회관(전화 ㉠9449)
3. 문학 강좌 : 7월 11일<토> 7시 30분 가톨릭 센터, 제목-교양으로서의 문학, 강사-이보영 교수<전북대>
4. 교리교사 연수회 : 7월 25~26일, 접수 25일 오후 1시

(중앙)

전화 ㉠3651번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보좌 신부
 사도 회장 박길영

1. 사도회 월례회 : 7월 9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부터 회장·고문·구역장·반장·각심신단체회장·부회장
 2. 마리아 빨리 : 7월 25일부터 3박 4일 논산 행사포는 별지
 3. 금요 성서연구 : 오전 10시 30분 어머니미사부터 오후 7시 30분 저녁미사부터, 81년도 영세받으신 분은 전원 참석 바람, 전교우 참석 바람
 4. 어린이 영세 : 81년 6월 28일 영세하신 자녀 및 본당 신자 가족, 6세미만 미취학 어린이는 7월 25일까지 접수 바람
 5. 신부님 병자방문 :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앓는 신자를 모시고 있는 분은 사무실에 신고하십시오
 6. 영세자 138명 탄생 : 축하드립니다
 7. 첫 영성체 교리 : 7월 4일<토>부터 교리 시작 주일학교 어린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생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8. 예비신자 교리 : 7월 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노인반-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성인반-남자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및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여자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및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부터
- 감사헌금 : 서노-이진의(1만원), 영세자(209,000원)
 □ 지난주 봉헌금 : 518,340원

(노송동)

전화 ㉠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19차 성령세미나 : 13일<월>-1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금주 성경읽기 : 구역의-역대기 상편 전체
 5. 유아 영세식 : 11일<토> 오후 3시(시간 엄수 바람) 매부모님을 꼭 모시고 나오세요
 6.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저녁 8시-10시까지
 7.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시
 8.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8시부터
 9. 아파트공소 건립기금 : 박사연씨(10만원) 감사합니다 공소 건립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0. 성가정회 모임 : 매주<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75,561원

(덕진)

전화 ㉠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서연구 모임 : 어머니팀-수요일 오후 3시, 젊은이-금요일 저녁 8시 ※ 보좌신부님 지도
 2. 예비자 교리 : 일요일-오전 11시, 수요일-저녁 8시 많은 예비자 참석바라고 비신자 인도 바람
 3. 축! 영명 :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람, 축하식-12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어린이 : 일요일 교리 오후 2시 미사 3시
 5. 중고생들은 주일 오전 9시미사에 참석합니다
 6. 사도회 월례회 : 오늘
 7.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에 많은 기도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94,970원

(복자)

전화 ㉠5238번
 주임 신부 김희택
 보좌 신부 김희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자모회 모임 : 7월 6일<월> 어머니미사 후 자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성우회 야외 단합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상관 신리다리, 박상기·장동주·유덕열·김방웅씨 유사, 성우회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3. 복자부녀회 월례회 : 7월 6일<월> 공식미사 후
 4. 봉헌금 미수금 완납바람 : 81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미납금이 너무 많아 교회운영에 지장이 많습니다
 5. 청년회 :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6. 예비자 교리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57,285원

(서학동)

전화 ㉠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반상회 : 5반-7일, 6반-8일, 7반-9일, 8반-10일 저녁 8시
 3. 성심부녀회 : 10일<금> 오후 2시
 4. 반장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운동장 복개공사 및 설가상 이전 : 총공사비 73만원 ※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 강기호 ㉡ 정형석 신자들의 기도-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 188,975원 교무금 : 170,400원

(숲정리)

전화 ㉠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본당신부님의 영명축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7월 5일 공식미사 후 회의실 구역장님 반장님 참석 바람
 3.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후, 수요일 저녁 7시30분
 4. 성서연구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많은 참석 바람
 5. 중·고등학생 미사시간 : 토요일 오후 7시 30분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 김영채 ㉡ 강동호, 기도-강원모
- 지난주 봉헌금 : 310,770원

(전동)

전화 ㉠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충두

1. 유아세례 : 학생미사 후
2. 사도회 :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장우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5. 다음주 구역회합 일정 : 7월 8일 오후 2시-전동2구 이금옥(마리아) 오후 2시-남동2구
6. 다음주 전례담당(7월 5일) :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 김창선 ㉡ 배양철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 이영태 ㉡ 이영희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 이승로 ㉡ 김동수

(파티마)

전화 ㉠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철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밤 미사후
 2. 구리아 회합 : 다음주 오후 2시
 3. 성모회 간부와 애령회 간부 임사회합 : 7월 10일<월> 10시미사 후
 4. 첫 고백·첫 영성체 : 다음 12일까지 신청용지에 신청 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주일-공식미사 후, 저녁미사 후 목요일-오전 10시, 저녁미사 후
 6. 대학생 모임 :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께 문의 바랍니다 ☆ 축! 결혼 : 신랑-손문길, 신부-채순심(아네스) 일시-7월 12일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 157,190원 교무금 : 320,000원